東大新聞
發行人 黃善永 編輯人 朴先九 印刷人 鄭九采
主幹 吳洪哲 編輯局長 金容喆 編輯部長 南 宣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 火曜日發行

東國人 浩然之氣 다져

14회 東國人登山大會 18日 北漢山일원서

총4백85개팀, 2천여명참가해 慶州大는 15일 南山일원서실시

4·19 기념 「제14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총4백85개팀, 약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북한산성 입구에서 실시되었다。이번 대회의 등정코스는 「세검정-대남문-문수봉-북한산북문학교」이었으며, 많은 참가팀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최고상인 총장상은 「R·O·T·C 2년차팀」과 「수학과 B팀」에게각각 돌아갔다。

한편 참가팀 모두가 등 쳤는데, 예년과같이 산행중 일부학생들이 율무하는 예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대회의 주요입상팀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ROTC 2년차팀 (재학생부·총장상) ▲수학과B팀 (재학생부·이사장상) ◇우수상 ▲통계A팀 (재학생부) ▲환경대학원C팀 (동문부) ▲ROTC 1년차팀 (써클부) ▲유스호스텔연합생팀 (여학부) ▲등대부고A팀 (동덕여학부) ▲도서관팀 (교직원부) ◇자연보호상 ▲국민윤리과 1팀 (재학생부) ▲불정대교수팀 (교직원부) ▲전산원C팀 (동덕여학부) ▲안양산업대학원팀 (동문부) ◇등산대회상 ▲불교학생회 E팀 (써클부)

慶州大

4·19기념 「제4회 慶州聚團人 등산대회」가 지난 15日 金「澤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 학생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南山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등반대회는 총2백50여팀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였는데 이날 일정을 살펴보면 출발지인 통일전(서울지)에서 집합해 널산을 마친후에는 북한산북문에 집결, 오전 9시에 코스로 진입하여 칠불암을 거쳐서 연못(용장계곡)에 도착, 오후 1시50분까지 중식을가지고 그곳에서산삼테스트를치루었다。

다시 삼선암을 거쳐서 4시에 종결지인 삼등에 도착하였는데 실시위원들의 채점이 있을 동안 참가팀들은 의장기랑이 진행되었다。

한편 각부분별 시상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 아카데미팀 (물리과1) ▲준우승상 = 법학과1년A조팀 (재학생부)

◇동국산악회장상 ▲불교학생회 E팀 (써클부)

慶州大

4·19기념 「제4회 慶州聚團人 등산대회」가 지난 15日 金「澤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 학생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주南山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등반대회는 총2백50여팀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였는데 이날 일정을 살펴보면 출발지인 통일전(서울지)에서 집합해 널산을 마친후에는 북한산북문에 집결, 오전 9시에 코스로 진입하여 칠불암을 거쳐서 연못(용장계곡)에 도착, 오후 1시50분까지 중식을가지고 그곳에서산삼테스트를치루었다。

다시 삼선암을 거쳐서 4시에 종결지인 삼등에 도착하였는데 실시위원들의 채점이 있을 동안 참가팀들은 의장기랑이 진행되었다。

한편 각부분별 시상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 아카데미팀 (물리과1) ▲준우승상 = 법학과1년A조팀 (재학생부)

◇숙등국인의 단합을 위한 등산대회가 총485개팀 이참가 한가운데 북한산성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佛誕기념」연등제작 높이 4·3미터 白象제작중

佛教학생회는 「스스로 밝히는 등불의 등불」이란기치아래 「연등제작」을 지난 3月25日부터 내달 19日까지 학생회관2층 H201호에서 진행중에있다。

이번 행사는 1천5백개의 연등제작을 목표로 불교학생 회원이 아닌 本校生으로부터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학통불문 50여명이 참가, 15日현재 5백여개를 제작했다。

제작된 연등은 「석가탄신일」에 체등되는데 교내가설등 1천개, 교외가설등 5백개, 정자원가설등 2백개, 전등행렬등 5백개로 쏘일 예정이며, 한편 체등행렬의 행로로 여의도-서울대교-아현동-서대문-광화문-조계사 순으로 된다。

또 이번 「석가탄신 기념일」에 「남象체잔」도 계획중이다。

높이4·3m 코·귀가 움직이는 자동으로 대형버스크기만하며 제작된 白象은 체등행렬과 함께 시가행진할 예정이다。

本校김광선君 금메달 지난9일 「킹스컵 복싱」

本校生 김광선(전통공학과1)군이 지난 9일 태국에서 열린 「제9회 킹스컵국제아마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라이트플라이급의 김군은 태국의 상금상가 놀을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텝을 이용 판정으로 승리했다。

한편 정용범(경제통계학과3)군은 지난 14일 있었던 「韓·美·日 친선국제

「考試特講」 내달7일까지 실시

考試指導委員會「考試特講」에서 일부의 지난15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명진관(A10)강의실에서 있게된다。

이번 특강은 고시준비를 하고있는 여러학생들의 요구와 의무인사에 의한 보충강의로 실시되는데 서울대 梁承圭(행정)·蔡仁(행정)·교수가 각각 상법과 민법을 맡아 강의하며 6월2일있을 제1회 「필답고사」를 앞두고 현직에게는 사법고시를 앞둔 수험생에게는 사법고시의 경향과 관계자는 말했다。

중간고사 1학년 科目만 28·29 양일간실시

慶州大學 교무과에서는지난13일 중간고사의 시행방법을 일부개정하고 그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난학기부터 정기적으로 치뤄졌던 중간고사가 이번학기부터는 강의의 내실을 기하기위하여 1학년과목에한하여만 오는28·29日 양일간실시하게되며, 2·3학년에 있어서는 종전과같이 각 교수의 재량에 맡기게 되었다。

또한 1학년 과목이라도 실험·실습·체육·교련·체육은 수업시간에 관계없이 각 교수의 재량으로 치루어지게 되며, 시간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佛大 金煥泰교수 지난5일 「雷虛賞」수상

金煥泰(佛大·불교학과)교수가 「雷虛불교학술상」을 제정한 제1회 「雷虛불교학술상」을 지난 5일 정각사에서 수상했다。

이번 雷虛 金東華박사의 雷虛에 수상된 논문은 「불교에 있어서의 觀音信仰형태」「請觀音經疏觀義鈔」(구권 宋慶猷國)「普門品玄贊」(일본 國柱法印) 등 희귀자료를 국제불교사적인 측면으로 연구·분석을 하였으며 이들 논문에 대한 평가는 수상자로 선정된것으로 알려졌다。

慶州大 「푸른…」 황윤기前시장 헌수

慶州大學 「푸른캠퍼스 가꾸기 헌수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4일 현재 동문인 황윤기前시장이 「同門들의 본을 받아 후배들을 위해 헌수」 했다。

佛大 金煥泰교수 지난5일 「雷虛賞」수상

金煥泰(佛大·불교학과)교수가 「雷虛불교학술상」을 제정한 제1회 「雷虛불교학술상」을 지난 5일 정각사에서 수상했다。

이번 雷虛 金東華박사의 雷虛에 수상된 논문은 「불교에 있어서의 觀音信仰형태」「請觀音經疏觀義鈔」(구권 宋慶猷國)「普門品玄贊」(일본 國柱法印) 등 희귀자료를 국제불교사적인 측면으로 연구·분석을 하였으며 이들 논문에 대한 평가는 수상자로 선정된것으로 알려졌다。

노학도 길동배군등 4·19先烈추모

東友塔서 4·19 스물세돌 기념식가져

「제23주년 4·19기념식」이 19日 오전10시부터 黃泰永총장을 비롯한 각부처 장, 교직원 및 학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우탑앞에서 거행되었다。

<4·19 가념식이 19日 등우탑앞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삼규 의 은후 사흥저원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참석자 전원의 분향이 있은후 사흥저원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이 자난 11일 오후6시30분부터 신별현(前경제기획원차관) 한국무역협회장의 「1980년대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란 주제로 東國館 L30-1에서 있었다。

민간기업이 조율하기 곤란한 諸問題보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해결을 보는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경제가 先進化되려면 우선 官主導경제체제에서 民間主導경제체제로 변경되야 하는데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률의 시행, 금융기관의민영화·산업조직개편이뒤따라야한다」면서이날특강을 끝맺었다。

4·19기념 현상논문 박정순당선, 백광열·김덕용가작

本社주최 「4·19기념 현상논문」 당선작 및 가작이 최종 발표됐다。

젊음과 용기, 실천의 표상으로 불리우는 4·19 23주년을 맞아 그날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나가기 위해 오늘의 학생정신의 문제에서부터 전통의 이해와 이르기까지 극복되야 할 문제를 모아 학생들의 글을 모집한 결과 총 28편이 응모,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4·19와 오늘의 學生位相문제」 부문에 백광열(경영과·4)군과 「理念과 민족통일문제」 부문에 洪起三(국문과)교수가 「民族文學논의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수용문제」 부문에 任敎姬(사학과) 교수가 「傳統文化에 나타난 民族意識과 계승문제」 부문에 朴興淳(국문과3)군이 각각 입선했다。

한편 심사위원으로는 韓相德(법학과) 교수가 「4·19와 오늘의 學生位相문제」 부문에 閔丙天(정외과) 교수가 「理念과 민족통일문제」 부문에 洪起三(국문과)교수가 「民族文學논의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수용문제」 부문에, 任敎姬(사학과) 교수가 「傳統文化에 나타난 民族意識과 계승문제」 부문을 각각 심사했으며, 사상상은토요일12시本社에서심사할예정이다。

제21회 全國高校文學콩쿠르

高校文學의 響宴

本社에서는 開校77周年을 紀念하여全國의 男女高等學校 文學徒들을 對象으로 創作意慾을 高揚하고 나아가서는 未來의 韓國文學을 이끌어 갈文才를 양성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 要領으로 第21回 全國男女高等學生 文學콩쿠르를 開催합니다。每年 많은文學徒를 발굴해온 이 뜻있는 잔치에 많이參加하여 榮光을 누리기바랍니다。

◎作品募集種目

(가) 詩……3~5篇이내
(나) 詩調……3~5篇이내
(다) 小說……50枚내외
(라) 隨筆……15枚이내

◎審査節次

高校生의 作品으로서 學校長이推薦한 作品 (推薦書同封하시기 바람)

◎施賞種目

1차 原稿審査에서 입선한者는個別通知하며 5월29일 本校에서열리는 「白日場」에서 最終入賞者를 결정한다。

▲詩部……①壯元1편 (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및 부상)
▲詩調部……①壯元1편 (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및 부상)
▲小說部……①壯元1편 (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및 부상)
▲隨筆部……①壯元1편 (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및 부상)

※1차 原稿審査에 합격한者에겐 入賞狀과 副賞을 授與한다。또한 각부문 당선자가 당해 학년도 (84年度) 本校 語文學系列 입시에 합격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作品提出期間 83년5월1일부터15일까지 본사로 우송할것

1983년 5월

東大新聞社

수리보리

開校77周年을 맞이하는 今年은 分明 東國中興의 해이다。

7字는 吉數며 極數로서 絕對數이며 幸運數이다。

이제 우리 東國은 7字의 數로 77周年을 맞이하여 傳統과 名門의 底力을 誇示한 것이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그의 應援에 열나 熱狂했던지 아직 손발이 아프고 다리가 우리는 이제 우승의 흥분에만 도취되어 있을수는 없다。

이날처럼 全東國人의 自의 같이 있었다고 하은 일찍 보지 못했다。모두가 하나가 된 그 마음은 참으로 形容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財團 나아가서 宗團 全體敎人과 東國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열나 感數의 感한 國技로 발전된 것이 野球인것이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이날처럼 全東國人의 自의 같이 있었다고 하은 일찍 보지 못했다。모두가 하나가 된 그 마음은 참으로 形容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財團 나아가서 宗團 全體敎人과 東國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열나 感數의 感한 國技로 발전된 것이 野球인것이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이날처럼 全東國人의 自의 같이 있었다고 하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이날처럼 全東國人의 自의 같이 있었다고 하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이날처럼 全東國人의 自의 같이 있었다고 하

白象의 獅子吼

이와같은 일체감의 힘으로 10월에 참단희였다가 이내 해체했고 1983년 國의 정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은 1996년에만 말기지 말고 全東國이 渾然一致되어 우승의 그때처럼 자발적인 단합의 후원이 있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승의 흥분에만 도취되어 있을수는 없다。좋은 쪽에서 쫓기는 표이되었으니까。

정상의 자리가 좋다는것은 再言이 不要하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不斷의 노력과 만의 실이하여 傳統과 名門의 底力을 誇示한 것이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을 꼽을수 있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것은 非단 나만이 아니었다。

이날처럼 全東國人의 自의 같이 있었다고 하

東問東答

▲問=忘却의 동물이라고한다。맞는말이다。맞지않다는 自己意識과는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은 어떤일의 비중여하에 따라 맞게의 속도 또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答=우리 모든 大學生 달라질 것이다。우리 모든 大學生에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성을 내포한 4월의 사건을 가지고 있다。올해로 4·19 스물세돌을맞았다。

本校는 지난 18일 이를 기념하기위해 「東國人 登山大會」를 열었다。매년 그 행사보다도많은 동국인이 참가하여 의미를 더하고있으며 과연 얼마만큼의 4·19정신을 되살려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東國人 登山大會」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있다。「4·19를 기념하고 東國人의 단결을 위한」이라는 취지에 부응하여 참가한 사람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들이겸 참가한 사람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들이겸 참가한 사람도 있었다。

이 참가비를 징수하게 되면 참가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4·19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것이 하나라도 없다는것보다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4·19를 무가치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계속 쉬어야 하는데 따라 참가자를 모은다」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학생들에게 자극의 계기가 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佛誕기념 연등제 작중

佛教學生會

白象제작중

慶州大 「푸른…」 황윤기前시장 헌수

慶州大學 「푸른캠퍼스 가꾸기 헌수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4일 현재 동문인 황윤기前시장이 「同門들의 본을 받아 후배들을 위해 헌수」 했다。

"친구가 잘돼야 내가 잘되지요"

함께 번영하는 길이 참된 번영의 길—
회사 동료들, 업무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거래업체 사람들, 고객들, 소비자들,
그리고 저 경쟁회사 친구들까지—
이 모든 친구, 이웃들이 잘 되어야
나와 우리회사도 잘 될수 있읍니다.

國際그룹은 국가사회라는 보다 큰 그룹의 일원으로서, 모든 친구와 이웃과 사회가 다 함께 잘되는 길이 참된 번영의 길임을 명심하고 무역, 제조, 건설, 운송, 증권 등 많은 분야에서 共存共榮의 기업이념을 실천코자 슬기와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함께! 함께 번영의 길을 갑시다.

誠実하고 다부진 젊은이의 일터—
國際

國際商事/聯合鐵鋼工業/國際綜合建設/元豊産業/國際綜合機械/東西證券/國際紡織/國際製紙/朝光貿易/國際商船/國際通運/聯合物産/豊國化學/新東製紙工業/東宇産業/成昌纖維/國際土建/國際綜合엔지니어링

4·19學生義擧

사설

해마다 쏟아졌에서는 4월19일이 되면 소위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

「德望」은 타고 나지않는다

〈慶大교수·農業經濟學〉 李萬雨

慶閥의 목표는 德과 知를 고르게갖춘 國家를 위기에 있는데 있다고 한다。(學記 知德兼全之謂)敎育의 현장은 知識만 중히 여기고 德을 닦는 일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그런데 실지사회는 統率力 組織能力 創意力과 같은 능동적인 人材를요구하고 있다。그러니 知識人의 犯罪(White Colour Crime)가 우글거려 社會를병들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知識人의 잘못이 無識人의 잘못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國家를 위기에 몰아넣고 社會에 큰 손실을 입힌 잘못은 모두 品位가보통이 없는 知識人의 소행이었다。

人生敎育을 소홀히 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최근각계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學級분위기가 오래전부터 人生을 토론하고 미래의 設計를 論할 친구없는 상태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音樂 映畵를 감상하고 名作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해야하고 行事에 참가해서 團結과 組織에 대한 애착심과 응집력을 길러야 愛國心이 거기에 있는데。

德望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學業에 열중해서 손색없는 專門家가 되어야 할과 동시에 다음世代의 德望家가 되기 위하여 治身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러 두고 싶다。

여 德望있는 사람의 統率力이 더 强하다고 했다。우리는 지금 國家를 整備로 이끌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진 時代에 살고 있다。그만큼 品位있는 人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德望은 어떻게 해야 높아질것인가。

人格的수양을 쌓지 못한 사람이 統率者로 등장할 경우 단위조직은 발전이 정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아무리 아첨을 잘하고 뇌물주머니라도 이런 사람이 統率者로는 없을것이 하겠다。

德望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德과 知를 고르게갖추어야 한다。(學記 知德兼全之謂)敎育의 현장은 知識만 중히 여기고 德을 닦는 일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그런데 실지사회는 統率力 組織能力 創意力과 같은 능동적인 人材를요구하고 있다。그러니 知識人의 犯罪(White Colour Crime)가 우글거려 社會를병들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知識人의 잘못이 無識人의 잘못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國家를 위기에 몰아넣고 社會에 큰 손실을 입힌 잘못은 모두 品位가보통이 없는 知識人의 소행이었다。

人生敎育을 소홀히 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최근각계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學級분위기가 오래전부터 人生을 토론하고 미래의 設計를 論할 친구없는 상태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音樂 映畵를 감상하고 名作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해야하고 行事에 참가해서 團結과 組織에 대한 애착심과 응집력을 길러야 愛國心이 거기에 있는데。

德望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學業에 열중해서 손색없는 專門家가 되어야 할과 동시에 다음世代의 德望家가 되기 위하여 治身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러 두고 싶다。

人學閑話

活生物人과 環境汚染으로인한

I 序論

公害나 汚染이란 語句는 이제 우리 生活 주변에서 항시 듣고 또 實際로 經驗하고 있다。

錦繡江山 : 아름다운 우리 國土란 이제 옛말이랑 돌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에 관한 問題는 人類의 生存과 關聯된 문제일에 틀림 없게 되는것 같다。

人間의 集團生活, 人口 增加와 産業化에따른 환경의 오염은 어제 오늘에 始作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의 사실로서 人間活動에 의해서 형태로 모든 消費物質을 人爲的으로 生産할수 있게 되었고, 이런 生活活動이 소비를 자극하므로 多量의 天然資源을 소모하고 廢物을 배출하는데 과학기술의 고도화나 기계공업에 의한 産業化가 크게 발전되면 人間生活이 質的으로 向上 되는것과 같은 나머지 편견이나 부관심 속에서 환경을 날용하였고, 이로 인해 인간·자연·생물과의 생태계에서 평형이 깨지게되어 지구상의 오염상태가 증가하게 되고 이증가는 人口증가와 資源의 소비등과 때를 같이하여 자연자원을 고갈시켜 환경오염이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폐물이란 糞尿를 비롯하여 생활하수, 공장폐수, 放射能物質, 소음, 진동, 매연, 분진및 가스등 그 오염원분은 다양하고 급격히 변하되어 환경에 달갑지 않은 부작용을 파생시키게 된다。

公害에 의한 被害는 人體, 家畜, 野生生物, 魚貝類, 植物, 建築物 그밖에 財産, 土壤등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런 현상은 急性被害, 慢性被害를 때로는 生態的 變化를 수반하므로 일어나는 피해등 그 현상이 다양한 것이다。

歷史的으로보면 오염원을 즐이기위해바빌론이나 앗시리아, 이집트의都市遺蹟을보면 이미 上水道施設이 있었고, 英國의 엘리자베드 女王은 1578년에 웨스터민스터궁전 近方에 석탄의 사용을금지시켰다고하며 1952년대, 런던市에서 주택과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기온의 逆轉, 無風, 濃霧에 의해 대기오염이 발생하여 약 4천명 가량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여 1954년 Clean air act을 공포하고, 美國이 1955년 Air polution act 소련이 1960년에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을 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63년 청주으로 공해방지법이 최초로공포되고 1971년 다시 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환경과 공해문제가 全世界的인 관심사가 되어 UNESCO (UN敎育科學 文化機構) WHO (世界保健機構) FAO (식량농업기구)및 UNEP (UN환경기구) 등에서 健康, 環境, 自然資源을 보존하고 生態學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保護委員會가 設置되었다。

1972년6月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백14개국가 참가하여개최한 UN인간 환경회의에서는 인간·환경선언26원칙이 생겼고 뒤이어 UNEP (UN환경기구) 가 발족되어오염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는분제가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오염환경의 미연방지와 달리를 선두로든일 년전에 까지 다달았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몇가지 환경에 대하여 알아 보고저 한다。

II 本論

1、水質汚染

地球面積의 2/3을 둘러싸는 것이 물이라고 하나 이의 0.03%가량이 淡水라고 한다。水質汚染은 河川·湖水·海岸과 같은 公共 自然水域에 生活下水, 産業用廢水, 農耕水로 인해 動植物의 生態系가 破壞되는 것을 말한다。

汚染源은 廢棄物이나 그 現象의 一部가 환경과 生物生態系의 變化를 가져와서 生物의 生育, 繁殖活動에 障害를 주는 현상이라고 定義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公害현상은 그 發生源이 人間의 生活과 人口의 급증, 開發과 生産過程, 交通·輸送·消費및 전쟁등에 의해 발생하는 廢物에 의해서환경 인을 낳게하고 이 현상으로또한 生態學的 變化를 초래하는것이다。

오늘날 科學과 技術의 발전은 보다 나은 商品 보다 나은 새로운 생활이라는 말이다。一方大量生産 유럽각국의 대학생들이 전화로 말미암아 授業과 수업을 계속했다고 들고있다。그만큼 대학생들은 社會에서 일어나는일에 상관않고 공부만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학생은 학생간부들은 학생의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 당과권력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위시한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학생간부들이 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심대한정책을 반대함과동시에 식민지정책을 반대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 할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

李敏雄
〈慶北農大교수·植物病理學〉

□…문제 환경오염의 날 오늘…□
□…오늘날 환경오염의 문제…□
□…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
□…하고있다。이에대한 문제…□
□…점과 대책을 本紙에서는…□
□…밝혀주고있으며 또한 국…□
□…가발전과 환경보전의 문…□
□…제를 잘 조학시켜나가야…□
□…된다고본다。<편집자註>…□

殘留性農藥 人間에直接피해

環境保全은 科學的방법으로 규명되어야

◇지구먼적의 3분의 2를 해안과 같은 공공지역에 물인데수 있어 물인데수 있어 물을 이용하여 오염을 나타낸다。

環境오염으로 人類의 위협

水質汚染…水中生物 生態系 파괴시켜

李漢洙
〈慶北大교수·農業經濟學〉

1、水質汚染

현재 우리나라의 水質汚染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1976년 현재 우리나라의 年間 물 給水量을 보면 生活用水가 39.7억톤, 공업용수 161·9억톤, 農業用水 112·1억톤및 유지용수 28·9억톤 계 357·6억톤이 된다는 전망인데 이를 漢江과 洛東江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5·5억톤및 67·5억톤으로 전체 금수량의 65·4%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河川水 利用率(1976년 현재)은 18·3%을 2천年代에는 58%로 增大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年間 總降水量은 1,140억톤) 중 45%에 해당하는 510억톤이 蒸發散으로 大氣로 逸脫하거나 地下로 滲透하고나머지 630억톤중 327·6억톤을 用水 總需要量으로 推定하고있다는 事實이 더욱 緊迫感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후 우리나라 河川水에 대한 水系別 水質 保全對策은 우리나라 産業發展과 國家發展을 決定的 要因이 되기도 한다。

農藥으로 인한 汚染은 河川, 海水 및 動物에도 피해를 준다。

1968年 美國 미시간湖에서 잡은 연어에서 20~30PPM의 殘留 DDT가 발견되어 FDA (美國聯邦政府 食品藥品 管理局)가 약 13만톤에 달하는 연어를 廢棄處分하므로 農藥인 DDT가 湖水에 汚染되고 먹이연쇄로 연어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해주는 것이다。

日本에서도 제초제인 CPC가 물에 흘러 들어 옴나 조개가 해를 입었는데 有機燐劑는 魚類 (연어)의 發育을 惡化시키고 DDT와 같은것은 물고기의 종족 신경을 파괴하여 시력감퇴는 산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生産量은 감소하고 死亡率을 높인 이유가 되기도한다。

有機水銀劑는 生體의 物質代謝를 관장하는 SH基를 가진 효소의 SH基와 結合하여 活性을 不活性化시키고 SH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中毒증상을 나타낸다。

食品의 오염상태는 水中生物의 경우 식물연쇄를 통해서 잔류성 농약이 고농축되어 오염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유기염소계 농약의 50% 이상은 육류와 우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유기염소계 농약량은 0·01PPM으로 계산되는 이러한 잔류농약은 농작물을 통해서 동물체에 농축된다。

III 結言

산업이 고도화되는 社會構造를 통해 수출이 國民經濟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수출품의 품질향상과 해충방제에 있어 農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農藥의 무분별한 사용은 환경의 破壞는 人類文化와 科學技術의 부절서한 발전의 所致이므로 근본적 개혁은 UN의 機能으로 해결하여 1973년 UNEP(UN環境計劃機構)는 특히 大氣·물·食品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의 건강유지를 도모해야한다고 하였다。農藥 첫번째에서 합한데로 「우리 인간은 意識的福祉生活을 허용하는 質의 環境속에서 자유와 평등과 더불어 생활할 基本權利로 갖고있으며 이와 동시에 現在와 未來의 世代를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할 嚴肅한 責任을 지니고 있다」와 같이 우리는 늘 환경이 오염되는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지고 행복되리라 믿는다。

大氣中에 방출되는 현상인데 오염원의 주된 원인은 石炭 重油 그밖에 燃料 不完全燃燒에 의해 排出되는 煤煙, 硫黃化合物의 酸化에 의해 생기는 二酸化硫黃등의 硫黃酸化物, 自動車의 排氣가스로 배출되는 一酸化炭素, 窒素酸化物및 각종 有機化合物, 오염된 排水에서 發散하는 아취물질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대기중에서 光化學反應을 일으켰다고 하며 그 酸化物이 傷害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大氣汚染이 植物에 미치는 影響에 있어서는 1930년대 벨기에의 Meuse Valley는 골짜기의 수모크에 덮여 그 속에서 化學的 汚染이 約 4日間 연속해서 일어나 60여명이 사망하였다는 事例를 비롯하여 1950년대 미국 donora에서 Thanksgiving day 전후 5일간 大氣汚染으로 인한 사망자가 평균 사망률의 10배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다。

3、食品·農藥의 汚染

금세기에 와서 農藥의 가장 큰공헌은 농작물의 病害虫防除와 새로운 농약의 개발에 의한 農業生産物의 增收에 따른 식량문제의 해결이 큰 업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농약의 남용에서 유발되는 토양과 식물·수질오염과 내성생물의 출현등이라 할수 있다。

農藥은 물고기의 종족신경을 파괴하여 시력감퇴는 산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生産量은 감소하고 死亡率을 높인 이유가 되기도한다。

有機水銀劑는 生體의 物質代謝를 관장하는 SH基를 가진 효소의 SH基와 結合하여 活性을 不活性化시키고 SH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中毒증상을 나타낸다。

食品의 오염상태는 水中生物의 경우 식물연쇄를 통해서 잔류성 농약이 고농축되어 오염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유기염소계 농약의 50% 이상은 육류와 우유를 통해서 섭취하는 유기염소계 농약량은 0·01PPM으로 계산되는 이러한 잔류농약은 농작물을 통해서 동물체에 농축된다。

2、大氣汚染

20세기 文明의 高度化된 産業化에 따라 각종 汚染源으로부터 大氣中에 방출되는 현상인데 오염원의 주된 원인은 石炭 重油 그밖에 燃料 不完全燃燒에 의해 排出되는 煤煙, 硫黃化合物의 酸化에 의해 생기는 二酸化硫黃등의 硫黃酸化物, 自動車의 排氣가스로 배출되는 一酸化炭素, 窒素酸化物및 각종 有機化合物, 오염된 排水에서 發散하는 아취물질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대기중에서 光化學反應을 일으켰다고 하며 그 酸化物이 傷害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大氣汚染이 植物에 미치는 影響에 있어서는 1930년대 벨기에의 Meuse Valley는 골짜기의 수모크에 덮여 그 속에서 化學的 汚染이 約 4日間 연속해서 일어나 60여명이 사망하였다는 事例를 비롯하여 1950년대 미국 donora에서 Thanksgiving day 전후 5일간 大氣汚染으로 인한 사망자가 평균 사망률의 10배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다。

□明知新刊□

한스 켈젠 著
張庚鶴 譯

共産主義 法理論

값 5,000원

□20세기 최대의 法學者 한스 켈젠에 의한 共産主義의 法 및 國家理論에 대한 權威 있고 正確한 批判書!

—주요 내용—

국가와 법에 관한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이론/레닌의 국가 및 법이론/스트츠카의 법이론/라이스너의 법이론/파슈카니스의 법이론/파슈카니스의 이론의 부인/비신스키의 법이론/골룬스키 및 스트로고비츠의 국가와 법이론/소비에트의 국제법 이론/해 설

明知社 서울동대문구용두동39-802 ☎967-1253

□書新教育明知□

가장 완벽하고 권위있는 敎育史論!

教育史新論

朴先榮 韓明希共著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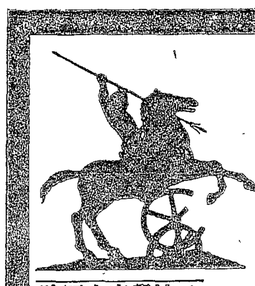
Ⅰ. 韓國教育史
上古時代·三國時代·高麗時代·朝鮮時代·大韓帝國時代·日帝의 植民地時代·8.15光復과 教育
Ⅱ. 西洋教育史
古代 그리이스의 教育·古代 로마의 教育·中世의 教育·르네상스와 人文主義教育·宗教改革期의 教育·實學主義教育·啓蒙時代의 教育·近代社會의 教育·現代社會의 教育

明知社 ☎967-1253

고려로탈트렌드

◎스포츠맨을 위한 특수렌즈
◎연속착용이 가능한 소프트렌즈

☎725)1133 종로2가(고려당6층)



陸軍士官學校의 모든것 오늘!

陸軍士官學校!
소란과 충격의 歷史와 함께 살아온 화랑대-육군사관학교의 숨은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陸士의 전 역사에서 뽑아낸 사나이들의 생생한 드라마!

- 陸士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 陸士人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 陸士人이 될수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30여년 동안 陸士에서 의길을 걸어온 著者가 육사의 모든것을 우리 앞에 펼쳐보인다。

陸士敎授部長 李鍾麒 著

화랑대

3,600원

대학문화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7 등복빌딩 1006호 ☎783-1541~5

제1회 전국중고등학생 "과학및 아이디어작품전" 개최

1. 목 적 : 중고등학생들의 무한한 창작력과 연구열을 고취시켜 과학화풍토를 조성하며 과학진흥에이바지한다。
2. 주 최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학도호국단
3. 후 원 : 동대신문사
   작품신청기간 : 1983년 4월30일~5월10일
   출 품 기 간 : 1983년 5월10일~5월20일
   출 품 장 소 : 동국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4. 전시기간 : 1983년 6월 1일~6월 7일(예정)
5. 전시장소 : 동국대학교
6. 대 상 : 83년 5월현재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7. 출품분야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수산, 공학, 해양등의 과학작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며, 실생활에적응할수 있는 작품을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①기초과학분야
   ②산업기술분야
   ③아이디어분야
   ④기 타
8. 출품할수 없는 작품
   ㉮과거에 출품되었거나 남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작품
   ㉯부패하거나 파괴·폭발할 위험이 있는 작품

東國大學校 工科大學

大學院 研究論文集 原稿募集

◇동국대학교 논문집(제22집)원고모집

1983학년도분, 본대학교 교수논문집 (제22집) 을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1. 논문집명칭 :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22집)
2. 투고대상 : 본교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3. 원고매수 : 200자원고지 200매이내
4. 원고제출마감 : 1983. 6. 30 (목요일)
5. 제출처 : 대학원 교학과

기타 상세한 것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랍니다。

◇대학원 연구논문집(제13집)원고모집

본대학원 논문집인 연구논문 (제13집) 을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1. 논문집명칭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13집)
2. 투고대상 : ㉮대학원 재학생 (석·박사과정)
   ㉯본교 시간강사 (본대학원 출신자)
   ㉰본대학원 재학생이아닌 본교의 조교
3.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내의
4. 원고제출마감 : 1983. 6. 30 (목요일)
5. 제출처 : 대학원 교학과

기타 자세한것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랍니다。

1983년 3월

東國大學校 大學院

4·19기념 특별상설무대

탈놀이에 나타난 民衆意識

朴炯淳 〈諦寇大 國文科〉

Ⅰ、序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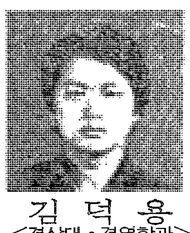
우리의 탈놀이는 民俗劇으로서 크게 民俗學의 범위속에 포함된다。민속학이란 民衆의 문화를 對象으로 하여 민중의 거짓없는 生活史의 흐름을 찾는 學問이며, 그 흐름을 통하여 오늘에 서서 來日에 創造되어 갈 未來文化의 방향을 잡는 學問이다。그러한 민속학의 한 分野로서 民俗劇은, 文學的 表現 樣相을 띠었으나 일찌기 記錄되지 못하고 오로지 口傳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민중의 생활을 바탕으로 문학하다는 意識하에 그들의 經驗, 意識, 價値觀 등을 반영하여 生成된 共同의 문학 遺産인 民謠, 傳說, 說話, 巫歌, 판소리 등과 함께 傳承되어 왔던 것이다。하지만 민속극은 다른 口傳文藝보다도 집약적 民衆意志를 담고 있으며 독창적인 劇形式을 통하여 타율적인 反民衆勢力의 싹을 비판하고 현실을 풍자하는 등 民衆意識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장르이다。

종이 각시와 어울려 음란한 춤을 추는것으로보고 兩班은 실의 마멸치 양은 포정으로 혀를 찬다。양반은 무엇보다도 禮儀道德을 존중하기에 이를 모르는 중을 경멸하는것은 당연하며 자기 優越性을 재확인한다。그러나 요사스런 춤을추는 각시를보면서 兩班은 스스로의 威嚴을 뒤집어 엎고는 이성에 대한 욕망과 지위적 체면과의 二律的인 葛藤의 爆發을 보이기는 표정을 짓는다。결국 예의모범을 표방하며 威嚴을 차리던 양반이 조금전의 중과같이 되어 버린데서 희극적 不調和가 이루어지고 이 부조화는 양반의 모순을 깊숙히 찌른것이며 양반을 비판하는 民衆의 웃음

民族統一問題

한다。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할 정신이 점점 퇴조를 보이는……◎
것이 아쉬워 本社에서는 4·19 23돌 맞이 현상논문을 실시 여기에 현상논문에……◎
입상한 두편의 글을싣는다。 <편집자註>……◎
……◎

당선소감



김덕용 <경상대·경영학과>

별루부전에 나오는 토전정이 용왕앞에서 口肝을 陸地에 두고 왔다고 했던가。반배의 원고지를 메꾸어 가는동안 精神은 밤늦도록 저달잔히고 몽롱한 상태에서 손만이 타이프 라이터마냥 自動的으로 움직이는 精神과 肉體가 二分되는 듯한 奇異한 순간의 나르함을 맛보았는데 이제 또 受賞所感을 쓰라고 하니 들통기엔 초갈은 밤부터 난다。시장하는줄 모르고 시작해서 끝나는줄 모르고 끝났던 미비한 논문이 이런 영광을 차지하고 보니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學兄들께 미안한감 없지않다。욱히려 이번 수상을 나에게 한경종을 전진을 요구하는 격려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이다。끝으로 나에게 용기를 넣어준 이진주兄서한석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져의 부족하고 여린 글을 選해주신 여러분들께 衷心으로 깊은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I、序論

우리국민에게 現在나 한번도 통일문제는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그것은 우리 民族文化계승과 창달을 위해서도 統一은 成立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또한 分斷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자신도 통일에 대한 意志와 當爲性은 인정하면서도 적극 통일문제에 관한한 悲觀的인 편이 적지않다。그러면 한반도의 분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 졌나 그것은 1945년 한반도는 美國을 주축으로한 연합세력에 의하여 36년간의 日帝軍國主義에서 해방되었다。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당시의 초강대국 미·소에 의해서 분할 점령당하면서 이념의 대립장소로 변모해갔다。제2차대전 종결직후 이념을 가진 두나라는 군사상대적인 입장에서 서로 牽制와 理念을 달리하면 상극적인 友好協力관계의 형성은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막연히 예측되었던 사실이다。또한 1950년에는 소련군의 대한민국 주둔하의 북한은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美·中共간의

◎…… 1960년 4월19일— 젊은 사자들의 가슴 가슴에 새빨간 정의의 피가 끓어 외로
◎……운 조국의 자태를 부등켜안고 不正과 不義의 마각을 白日하에 드러내던날…… 지
◎……성의 양심은 自由를 찾는 외침이되어 만천하에 을려퍼졌고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
◎……는 육신을 던져 오역의 역사에 과감한 도전을감행했다。벌써 4·19 23돌을 맞이

學生運動으로서의 4·19精神

白光烈 <農科大 農經科>

지금 심정은…

부끄럽다。

어설프게 써내려간 글이 不義에 맞서 鬪爭했던 선배들의 순수한 精神을 오히려 가리우지나 않았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요즘의 大學을 가리켜 흔히 「理念不在」의 대학이라고 하기도 한다。이것은 대학의 이념이 그 自律性에 의해서 찾아지지 못하고 他律에 의해 가치 혼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빚어지는 現狀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대학의 본질은 學問의 연구와 교수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基本的 관점에서 시작할 때만이 「知識」과 「實踐」의 문제가 서로 不可分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實踐」이라는 말은역사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發展的 參與」를 의미한다할 수 있다。

4월혁명도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되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하기에 아직까지도 유학생들과 함께호흡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이글을 쓰는데 필요했던 참고문헌의 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글쓰기까지 격려해준 주위의 학형들 심사위원 선생님 신문사 여러분께감사드린다。

4·19紀念학생 논문 현상모집

4·19와 學生位相」부문

韓 相 範 교수

4·19를 전후해 현상을 모한 글 가운데 백관열(농경4)군의 글을 뽑았다。다른논문보다 짜 실사하면서 생각한 것은 응모한 학생들이 4·19를 분석、체험하지 아닌 세대라고하는 점과 특히 대개는 자기 전공이라고 하는점에 관심을두지 않을수 없었다。백관열군의 「학생운동과 4·19의정신」은 4·19참여자 자체 분석에 이르기까지 점점 나가면서 4·19혁명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파악하는 관점에서 우리 민족사에 남긴 유산을 4·19가 학도민족운동으로 민족주체성과 민주지향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점을 볼 수 있었다。이점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해석이 꼭 같지 아니할 수있다고 하는것을 감안하더라도 해도 그역사 인식에 접근하는면에서 어떤 점에서는 미숙하다거나 엮로는 단정적이라고하거나 갈격과 호소력이 앞선 나머지 생각해야 할 점도 있지만、전문역사학도나 사회과학도가아닌 일반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한편으로는 짚고 넘어갈 점도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본것이다。

이번에 응모한 글에서는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가 나름대로의 고실을 하고 있는 역연한 자취를 볼수있는 점이다。뿌듯하다고할까 분발하길 빈다。〈法政大 法學科〉

「4·19와 學生位相」부문

韓 相 範 교수

4·19를전후해 현상응모한 글 가운데 백관열(농경4)군의 글을 뽑았다。다른논문보다 짜임새 있게 실사하면서 생각한 것은 응모한 학생들이 4·19를 분석、체험하지 아닌 세대라고하는 점과 특히 대개는 자기 전공이라고 하는점에 관심을두지 않을수 없었다。백관열군의 「학생운동과 4·19의정신」은 4·19참여자 자체 분석에 이르기까지 점점 나가면서 4·19혁명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파악하는 관점에서 우리 민족사에 남긴 유산을 4·19가 학도민족운동으로 민족주체성과 민주지향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점을 볼 수 있었다。이점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해석이 꼭 같지 아니할 수있다고 하는것을 감안하더라고 해도 그역사 인식에 접근하는면에서 어떤 점에서는 미숙하다거나 엮로는 단정적이라고하거나 갈격과 호소력이 앞선 나머지 생각해야 할 점도 있지만、전문역사학도나 사회과학도가아닌 일반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한편으로는 짚고 넘어갈 점도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본것이다。

이번에 응모한 글에서는볼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가 나름대로의 고실을 하고 있는 역연한 자취를 볼수있는 점이다。뿌듯하다고할까 분발하길 빈다。〈法政大 法學科〉

「民族統一……」부문

閔 丙 天 교수

應募論文의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몇편은 論文의 形式과 內容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論文으로서 成立하기 위해서는 論文으로서의 形式과 內容을 갖추어야 한다。그것은물론 論文을 추구하는 態度에도 不誠實이 아닌것이다。論文은 主題를 깊게 다루고 分析하는것이어야 한다。비록 滿足할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기회가 關心問題를 다루고 또 論文修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法政大 政外科〉

「民族統一……」부문

洪 起 三 교수

統一問題를 주제로 하여 다룬 論文을 실사하면서 일차적으로 느낀 것은 많은 學生이그 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解放 二世代로 표현될 수 있는 大學生의 統一에 대한 관심은 일부의 紀選와는 달리 그들이 統一을 기필코 달성하는 主體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한 關心의 深度에도 불구하고 統一을 客觀化시켜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한 새로운 意見의 創出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것이 아니었다。자기의 문제 (자기나라도 포함)를 다룰 경우에는 先入見이나 情緒가 많이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現實을 客觀化하기는 쉬지 않다。그 결과 情緒的인 主張은 있어도 客觀的인 分析은 없는 論文이 많았다。대부분의 論文이 統一에 대한 當爲性은 있었으나 當爲性은 現實性을 바탕으로 해야 실현될 수 있다는점을 감과한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應募論文의 일부는 몇편의 形式과 內容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論文으로 成立하기 위해서는 論文으로서의 形式과 內容을 갖추어야 한다。그것은물론 論文을 추구하는 態度에도 不誠實이 아닌것이다。論文은 主題를 깊게 다루고 分析하는것이어야 한다。비록 滿足할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기회가 關心問題를 다루고 또 論文修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法政大 政外科〉

「傳統文化……」부문

任 敦 姬 교수

「탈놀이에 나타난民衆意識」은 한마당로랖은 논평을 기울인 작품이라 할수 있다。학생논문에서 가장 주요한 요건이라 할 수있는 그 分野에 대한先學의 연구를 착실히소화하였다는 점을 특히 높이 사고 싶다。탈놀이에 있어서의 민중의식을 그 탈놀이가 형성되었던사회상황、또는 경제상황과의 관련에서 보려고 한 점은 주목할만하다。또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등 많은 열정을 보인점도 좋았고 부분이나마 先學의 견해에 대한 비판과 나름대로의 독창적 해석도 이 논문의 장점으로 보였다。마지막으로 논문서술의 영리에도 충실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탈놀이와 민중의식과의상관관계를 논할때 너무 파편적이고 산만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다시 말해서탈놀이에 나타난 민중의식과 경제적 상황 신분적 상황과의 관련성적 연결에 대한 논증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진 느낌이다。예컨대、탈놀이가 극성기를 이루는 朝鮮後期의 사회구조나 그 계층의 분화와 변화된 양상에 대한서술에 있어 허점이 보인다。마케링 구조의 변화가 신분의 균형을 깨뜨리고、특히 양반계층이 경증하는 경과를 초래한경제적 구조와사분체제의 영화관계에대한 체계있는 논증이 아쉽다。좀더 복잡하고 착원분은 해석을 요하는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바이다。〈文科大 史學科〉

「民族文學……」부문

洪 起 三 교수

「民族文學 論議에 있어서 리얼리즘우월론은 제1는 제목으로 두 편의 論文(롯씬또·최인훈)을 들 수 있다。이 주제에대한 論爭들의 기본 입장은 긍정적인 것에 속한다。뿐만아니라 주제가 갖는 현실적인 중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논증의 과정이 비록 상징적 수준을 넘지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논자들이 주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리얼리즘、노동문학、민족문학등의 用語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개념의 範疇化를 시도한 것이라든지、위의 用語들이가지고 있는 문학적 상호관련의 의미라든지、나아가서80년대 우리나라 문학이 부여받고 있어야할 과제 또는 方向으로의 民族文學이론의 질을 높이는 의욕등이 논자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고있음직하다。그러나 롯씬또의경우 특히 論文의 체제가 매우미흡하고(예컨대 최근문학이나 韓의 제시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 전개의 전반적 양상이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다。우선 논문체제에 대한 주의가 선행되었어야 했을 것이다。최근의 경우 산문한 비평적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생략되어도 무방한 說明이나 解說(예컨대 解放前 民族文學論이나 사실주의의 개념정의 등등) 같은 군더더기 많고 기정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결론나 視角을 생략한 채 그것에 손쉽게 동의해버리는 논조가 지배적인 점이 논문의전체적 비중을 놓이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한다。당연의 비평적 정진을 기대한다。

〈文科大 國文科〉

◇4·19는 自由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봉기였다。

<표1> 朝鮮末부터 獨立後까지의 韓國社會 支配層形成過程

朝鮮末	日帝前期	日帝後期	獨立後
封建勢力	地主	地主	政治勢力
			商工業者
		官僚	官僚資本家
		知識層	知識層

(유영표, 形成 제4권제1호 참고)

<표2> 學生蜂起의 主要動因

主張類型	總計 頻度	3·15前 頻度	3·15後 頻度
學園의 自由	30	19	11
不正選擧 배격	23	6	17
부패와 독재배격	21	12	9
국민과학생궐기호소	15	7	8
경찰의 포악규탄	12	0	12
시위 권리주장	11	0	11
政權 사퇴요구	7	0	7
구속학생 석방	4	1	3
폭력배 규탄	4	0	4
사법부 규탄	3	0	3
民主獻 지지	2	2	0
신문강제구매 반대	1	1	0

(金聖泰, 成均館大學論文集, 1960·12·30)

不義에 抗拒하는 시대정신 歷史의 諸桎梏에 대한 우리民族의 自覺

부패한 現實과 民族격정하는 순수입장이 動因

文 相 孝 교수

◇4·19는 自由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봉기였다。

<표1> 朝鮮末부터 獨立後까지의 韓國社會 支配層形成過程

朝鮮末	日帝前期	日帝後期	獨立後
封建勢力	地主	地主	政治勢力
			商工業者
		官僚	官僚資本家
		知識層	知識層

(유영표, 形成 제4권제1호 참고)

<표2> 學生蜂起의 主要動因

主張類型	總計 頻度	3·15前 頻度	3·15後 頻度
學園의 自由	30	19	11
不正選擧 배격	23	6	17
부패와 독재배격	21	12	9
국민과학생궐기호소	15	7	8
경찰의 포악규탄	12	0	12
시위 권리주장	11	0	11
政權 사퇴요구	7	0	7
구속학생 석방	4	1	3
폭력배 규탄	4	0	4
사법부 규탄	3	0	3
民主獻 지지	2	2	0
신문강제구매 반대	1	1	0

(金聖泰, 成均館大學論文集, 1960·12·30)

4·19精神은 浮刻

曹溪宗 大韓佛教

宗正 李性徹
■元老會議
議長 朴淇宗
副議長 姜昔珠
■總務院
院長 黃軫經
總務部長 朴鍾夏
教務部長 李性陀
財務部長 金虛玄
社會部長 金法長
糾正部長 金慧法
企劃室長 金正樂
總務局長 裵鐵牛
教務局長 李永煥
財政局長 陳玄根
社會局長 金虛定
第一局長 黃宗眞
第二局長 李法政
第三局長 鄭陽山
■中央宗會
議長 徐義玄
副議長 朴明煽
副議長 邊蜜耘
事務處長 李眞徹
■布教院
院長 無盡藏
布教部長 成岩度
錬修部長 安養國
布教局長 李碧峰
錬修局長 鄭慧昌
護戒委員長 鄭道圓

東大新聞 創刊33周年을 祝賀합니다

卒業定員에 이한 탈락 제대한 줄이겠다

黃총장 : 앞으로 本校의 사업계획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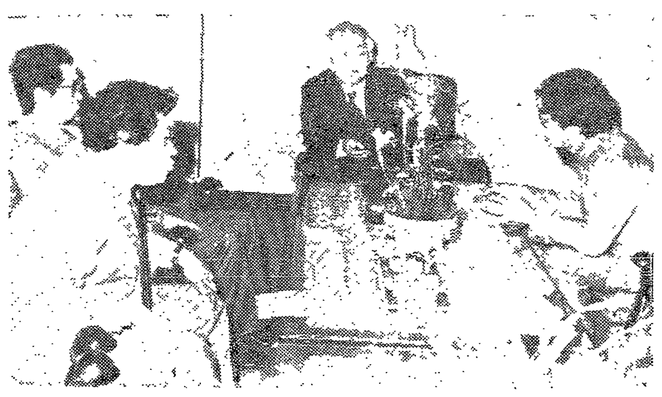
도서구입,기재비치등 勉學여건에 힘쓸터

◇대 담 자
黃壽永<本校총장>
南 渲<本社편집부장>

◇배 석 자
吳洪哲<本社주간>
朴鍾燦<비서실장>
金容喆<本社편집국장>

◇일시 : 1983년 4월15일 오후 3시

◇장소 : 本校총장실



◇사진은 지난15일 校內의 제반문제등을 토론하기위해 열린총장·신문사 대담광경.

총장·신문사 對談

남=바쁘신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총장=자네를 만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없고 스케줄이 잘 안잡히고… 남=총장님이 바쁘신것 같이 학내 전반에걸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본교의 건설종합경자문위원회가 생겨서 많은 건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東國學園이라든지 후문동산 그리고 慶州大 도서관 기타 여러가지 공사가 많이 學生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도서관 증축및 慶州大 마스터 플랜등 기타 여러가지 학교 건설관계가 있을텐데 總長님이 指向하시는 方向, 특히 학내 建設進展問題에 관해서 總長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총장=글쎄, 우선 慶州大學은 지금 수용하고 있는 학생이 4千여명이 넘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도서관이 용하고 또 숙식할수있는 기숙사등 세가지 問題가 우선 일단락 되어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며칠전 慶州 도서관을 가보니 아주 훌륭한 학교구내에 있는 대규모의도서관이 아주 좋아요.

특히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더오.

또 제일 큰일이였던 식내하고 연결하는 3백m의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됐으니까.

남=경대교요.

황총장=글쎄, 경주의 대교인지 慶州大學의 다리인지 아불는 경찬교가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설계가 거의 끝났으니까 반가운 일이죠.

5월이면 착공될거고 이것이 완공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겁니다.

60m를 매일 갈이 제방길로 학생들이 다니고 했는데 직통으로 건너오니까 교직원·학생들의 통학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할수있지.

한편 慶州처럼 주택난이 어렵운데가 없었는데 교수, 직원이 60세면설계가 끝나는데로 벌써 산을 평에 금년에 착공되면 연내에 完工되겠지요. 교직원의 아파트60세대가 완공되면 교수들의 부분도 적어지게돼 慶州大교외에게는 큰도움이 될겁니다. 또 앞으로 慶州大學의 새로운 추가건물에대한 구상을 해야되겠죠.

남=겨울방학때 제가 한번 내려 가봤는데 학교가 서울 조선보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학생은 별로 없고 설렁한것 같은데 慶州大을 포함한 學內構想나 道路관계에대해 계획하신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총장=금년에 내가 한트럼부의 나부를 심어서 금년에도 아주 조경이 잘 되었어요.

나부도 작은 묘목이 아니라 2~3미터는 나무들만 심고 도서관 가는 길도 남무가 있고 그만하면 일차적인 造園은 되었다군요.

또 서울에있는 예산을 끌라서 특별히 배당했고 나도 작목련 10년생 두그루를 도서관 일우에 심었읍니다.

남=선생님께서는 현재 관재과에서 잔디밭에 나무를 심고있는데 지반이 알성종이라서 특수한 나무를 ,권는다는이야기도 나오는데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學校造園관계 특히 본교같은 경우는 學校의 규모가 커지지 않고있고 학생들은 점점 늘고있기때문에 학생들의 휴식시설이 많이 없었는데 總長님 構想하고 계시는 학내 휴식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총장=본교 휴식처는 학생회관뒤에 2백평정도가 놀고있어요.

그것을 開發하겠으며 또 몇군데 공간을 활용해야죠.

나무 심는 것은 내가 연습림에서 또한 트럭분을 들여와서 추가로 4천주를 심었는데 그래도 눈에 안 띄더군요.

造園문제는 후문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돈깁로 나무 심을 제외이며 지금 증단 되고있는 용별공산는 학교마크를 닮기로 했는데 關係교수님이 몰이 불편해 나오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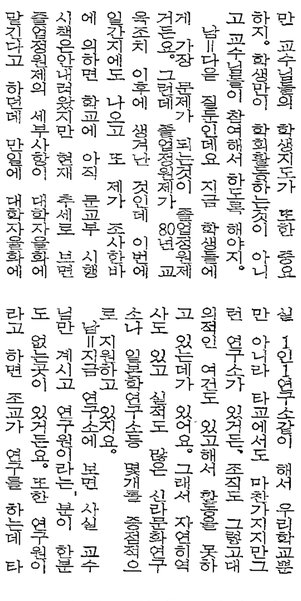
남=그럼 年內로 東國의 랜퍼스가 많은 탈바꿈을 하겠군요.

특히 造園관계에 대해선요.

황총장=造園관계는 「건·조·위」가 있고 나무도 더 심어서 나아져야지.

남=얼마전에 야구부가 우승을 해서 대규모의 환영잔치도 하고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大學이 발전하려면 홍보의 역할이 크다고 思料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체육부의 열활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체육부의 육성관계로, 특히 어느 한 부서에만 집중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체육부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소 活性化, 관계당사자의 노력필요해

敎授·學生이 同參하는 학회활동 되어야

편해 나오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겠지요.

남=그럼 年內로 東國의 랜퍼스가 많은 탈바꿈을 하겠군요.

특히 造園관계에 대해선요.

황총장=造園관계는 「건·조·위」가 있고 나무도 더 심어서 나아져야지.

남=얼마전에 야구부가 우승을 해서 대규모의 환영잔치도 하고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大學이 발전하려면 홍보의 역할이 크다고 思料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체육부의 열활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체육부의 육성관계로, 특히 어느 한 부서에만 집중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체육부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장님도지난 일본해서 하지 말고 학생 관계스포츠를 이용한다든지 육성. 달학자들로 금년에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던데.

고등학교에 신문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또 나도 며칠전에 慶州大學과 만나서 권두사진도 찍었죠. 교무부도 따로 자리를 잡고 인원도 증가됐죠. 등학회에서 학부의 의지교해서 팀웍도 짜졌지요.

또한 공대에서도 이 나이어현장교육을 하던데 내가 그전에 그랬어요. 교육학장님도 어떻사람이 똑같이도 공대가 있느냐고 물론해. 그럼 있고 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웃음) 했지요.

그래서 강단에는 교육대학교수들이 외국에 갔다 오지면 신문에도 내고, 공대분은 안그러고 도서관 가는 길도 남무가 있고 그만하면 일차적인 造園은 되었다군요.

또 서울에있는 예산을 끌라서 특별히 배당했고 나도 작목련 10년생 두그루를 도서관 일우에 심었읍니다.

남=선생님께서는 현재 관재과에서 잔디밭에 나무를 심고있는데 지반이 알성종이라서 특수한 나무를 ,권는다는이야기도 나오는데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學校造園관계 특히 본교같은 경우는 學校의 규모가 커지지 않고있고 학생들은 점점 늘고있기때문에 학생들의 휴식시설이 많이 없었는데 總長님 構想하고 계시는 학내 휴식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황총장=본교 휴식처는 학생회관뒤에 2백평정도가 놀고있어요.

그것을 開發하겠으며 또 몇군데 공간을 활용해야죠.

나무 심는 것은 내가 연습림에서 또한 트럭분을 들여와서 추가로 4천주를 심었는데 그래도 눈에 안 띄더군요.

造園문제는 후문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돈깁로 나무 심을 제외이며 지금 증단 되고있는 용별공산는 학교마크를 닮기로 했는데 關係교수님이 몰이 불

學會正常化의 諸問題

학문의 창달과 직업 추구를 위한 대학의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학생들이 자신들이 깨우치며, 발전적인 발향으로 이끌어주는 학초적 주사회라 볼수있다。

한 개인에 의해 사회를 이끌어나갈수 없다는것은 모두 주지하는바, 그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참여의 협조속에서 계획, 집행되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물론 대학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대학이라는 큰틀안에 학과과 학회의 구성원들인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학문연구·단체생활을 통한 각자의 인격도야, 사회인으로서의 소속감및 대인관계를 원활히 해주는데 큰역할을 담당한다 하겠다。

지난 75년이후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왔던 學會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면학풍토조성및 지각증후해 復活된지 1년이 넘어 선다。

각 학과의 복합된 자치기구로서 각종 학술연구회, 연구발표회, 체육대회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학회가 부활된 이후 학회활동의 대부분이 강연회, 선후배 친목 체육대회, 신입생 환영회등 과거 행사 답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참여는 뭔도가 여전히 하락하는데 대해 학생들의 意識이 바뀌지 않는한 「學會正常化」는 헛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학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면 적을수록 학회가 발전적인 학문의 요체로 유도하기엔 많은 그장애 초래되리라 본다。

그동안 학회활동을 통한 문제점및 질책부 구성에 관한 문제, 학회지발간에 대한 문제, 학생을 스스로 참여하는 학생모 문제, 꿈으로 이끌어야할 요람인 대학은

慶州大 신입생 合宿 문예교실 詩部 장원

구름처럼 떠돌다가

김미양

〈慶州大 國文科〉

구름처럼 걸읍시다。
오로라의 차가운 가슴에서
부우옇게 흐린한 안개가 피어올라
우리는 먼길을 걸읍시다。

숲 속에서는 조그만 그루터가에 앉아
바람결이 실어오는 먼다라와 얘기들을
가슴 가득히 들이 마시어 기쁘하며
하늘을 바라보아 감사도 하고
그러다 떠가 희면 또 떠납시다。

하늘아래 청동네가 뵈이며
그곳에 보고 싶던 이들이 모이어 살면
우리는 간직하던 슬픔의 구슬을을
애써 잦아온 기다림에 꿰어
그들 파리한 목에 걸읍시다。

징검다리 건널만한 시내에서는
차갑게 휘감기는 물결속에
피로한 손발을 말겨 버리고
마주 바라보며 잠시등안 웃읍시다。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리며는
지난온 아름답고 그리운 얘기들을
그들의 가슴에 초초히 차도록
스며들토 부드럽고 달콤한 소리로
그네들의 귓속으로 부어 븝시다。

그리운 이에게는 그리운 얘기들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사랑스런 이야기를
슬퍼하는 이에게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모든 영혼의 부름에 따라 오늘도
구름처럼 걸읍시다。

文化批評

모방은 유명商標

연극은 하나의 小宇宙 창조

부단한 再創造로 자기藝術 이뤄야

演劇은 끊임없는 재창조

— 오사단

〈5〉

극예술 연구회 탐방

「오사단」이란 희곡작가이자 연출가인 오태석씨를 중심으로 모인 연극인들을 연극계에서 부르는이름이다。아직 모두를 배우는 일장이라고 생각하기에, 극단으로의 간판이 없다고 오태석씨는 전통의 수용과 한국연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연극의 출발을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제전으로 잡고 그 제전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서구의 연극이론이 우리의 연극에 적용되기 쉽다。그러나 동양의 연극은 그 순서가 반대이며, 즉 諸감인 언어로 논리적인 오태석씨는 전통의 수용과 한국연극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연극의 출발을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제전으로 잡고 그 제전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서구의 연극이론이 우리의 연극에 적용되기 쉽다。그러나 동양의 연극은 그 순서가 반대이며, 즉 諸감인 언어로 논리적인 단순성과 언어의 律動에 의한 음률 그리고 스펙타클한 움직임과 확산적이고 상징적인 표정으로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intuition에 기

명상품들。

나이키派, 프로스펙스派 갈리는해프닝도

매스컴의 과대광고 射倖心 조장

캠퍼스內에서도 미니패션쇼 방불케해

형태를 통한 자기PR의 시대라고 말한다。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수하여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남들보다 돋보이도록 노력하는 시대로 변모하였다 할수 있겠다。

이렇듯 범람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의모를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과거 일부 사람들에게서 보이던 유명메이커들의 상품 선호도가 이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관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분별력 없는 소비행위로만 치는 소비행위로한 사회현상의 조작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중 외국 유명제품이라 일컬어지는 상품의 가운데 대해 한관계자는 『우선 그 제품의 바탕이 되는 원재료의 우수성, 또 그제품의 외양을 보기 좋게 하는 디자인의 우수성, 다음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등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쳐놓더라도 현재 유명상품에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1년전 프로야구가 한창 붐을일으킨 MBC청룡팀의 키다리의 MBC청룡모니 삼선티이어즈파라니 하는 등 어린학생들이 각기 프로야구팀의 팬가 되어 응원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제쳐놓더라도 현재 유명상품에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1년전 프로야구가 한창 붐을일으킨 MBC청룡팀의 키다리의 MBC청룡모니 삼선티이어즈파라니 하는 등 어린학생들이 각기 프로야구팀의 팬가 되어 응원하는 실정이다。

그리운 이에게는 그리운 얘기들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사랑스런 이야기를
슬퍼하는 이에게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모든 영혼의 부름에 따라 오늘도
구름처럼 걸읍시다。

〈慶州大 國文科〉

文化短信

밤부터 아침까지

22日부터, 실험극장서

극단 〈新協〉에서는 로찌스키레이션 발로루터 아침까지 를 이용우 演出로 22日부터 실험극장에서 공연한다。공연시간은 4時30分, 7時30分。

책 안내

現代韓國佛教論

佛敎社會文化硏究所 編

現代 韓國佛敎의 診斷과 展望을 위해 佛敎社會文化硏究所에서는 佛敎界에 佛敎自體의 교리와 사회와의 만남을 이루는데 여러가지 學的 빈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의 새로운 시각과 자기이론으로 다듬은 옥고 「現代韓國佛敎編」을 펴냈다。

총 3章으로 구성된 本著는 1장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에 치중했으며, 2장은 1장의 총론적 전자에 의거한 韓國佛敎와 학론적 고찰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3장에서는 부록으로 日本불교의 과거와 현황을 소개하고 아울러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佛敎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現代佛敎의 社會認識

幸樞正一著・羅道守譯

종교가가 아닌 사회과학자 幸樞正一이 불교를 종교로서만 아닌 객관적 시각 특히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있는 「現代불교와 사회인식」을 저작, 동문羅道守씨가 번역출간했다。

본저는 학문적 인식을 뛰어넘어 종교적 실천적 입장에서 불교이해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고있으며 특히 역사의 문제, 노동의 사상, 평면적・개량적 사회사업의 문제, 나아가 맑시즘의 문제등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적하고 있다。

記錄映畵論

폴 로다햐・兪賢穆 譯

다큐멘터리 및 극영화의 프로듀서이며 감독, 저술가, B・B・S—TV의 다큐멘터리 책임자, 영국 영화아카데미 회원인 폴 로다가 1953年 낸 초판을 增補하여 제 3판을 낸 「記錄映畵論(DOCU MENTARY FILM)」을 本校 兪賢穆(文科大・演映科) 교수가 번역, 出刊했다。

극영화의 미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創作法을 제시한 다큐멘터리의 精神은 각종 영상에서 진실로 살아있는 사물과 人生을 대하는 체험으로 더욱 가치가 있다。

저자 폴 로다는 本著에서 다큐멘터리는 본질적으로 人類의 지식과 이해, 그리고 궁극의 행복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세계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世界語로서의 영상수단은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계로 밀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現代韓國佛敎論

佛敎社會文化硏究所 編

現代 韓國佛敎의 診斷과 展望을 위해 佛敎社會文化硏究所에서는 佛敎界에 佛敎自體의 교리와 사회와의 만남을 이루는데 여러가지 學的 빈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의 새로운 시각과 자기이론으로 다듬은 옥고 「現代韓國佛敎編」을 펴냈다。

총 3章으로 구성된 本著는 1장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에 치중했으며, 2장은 1장의 총론적 전자에 의거한 韓國佛敎와 학론적 고찰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3장에서는 부록으로 日本불교의 과거와 현황을 소개하고 아울러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佛敎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現代佛敎의 社會認識

幸樞正一著・羅道守譯

종교가가 아닌 사회과학자 幸樞正一이 불교를 종교로서만 아닌 객관적 시각 특히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있는 「現代불교와 사회인식」을 저작, 동문羅道守씨가 번역출간했다。

본저는 학문적 인식을 뛰어넘어 종교적 실천적 입장에서 불교이해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고있으며 특히 역사의 문제, 노동의 사상, 평면적・개량적 사회사업의 문제, 나아가 맑시즘의 문제등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리리

尹時林 〈11〉

메아리

▲不義와 獨裁에 맞서 싸우다 산 學徒 民主 당시 결단력 있게 의로운 행동을 외쳤던 그 젊음을 기리는 희전의 자리가 없어 아쉽다。▲4・19 革命 精神의 계승은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4・19 革命 19주 거사가 닥쳐오는 4월 중순 스산한 캠퍼스 풍경이 아니라 오태석씨의 「춘풍의 처」는 날 그 운동이 오늘날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오늘날 大學街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학생운동에는 너무나 목적의식이 없다。▲時代가 바뀌고 政權이 바뀌어도 眞實이 거짓으로 변질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史 歷 숙한 엄

언제나 신선한 만남 클로즈-업

상쾌한 숨결 새하얀 치아로
자신있게 만나세요.

상쾌한 숨결 새하얀 치아,
만남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세요.
클로즈업 치약은 새하얀 치아와 기분까지
상쾌하게 느껴지는 신선한 숨결로 언제나
싱그러운 만남을 약속합니다.

구취방지효과 클로즈업은 유니레버 고유의 처방으로 입안에 냄새가 생기는 것을 막아 줍니다.

치아를 새하얗게 클로즈업으로 가꾼 새하얀 치아는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향기의 지속성 신선하고 상쾌한 클로즈업의 향기는 오래도록 지속되므로 입안을 항상 개운하게 합니다.

산뜻한 투명젤타입 빨강・초록 두가지색의 투명 젤타입으로 사용감이 상쾌하고, 레드민트와 그린민트의 두가지 맛과 향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쓸 수 있읍니다.

클로즈-업

●권장소매가격●150g 1,000원●100g 720원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수퍼, 연쇄점, 백화점, 소매점에서 찾으세요.

●총력안보●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 실천으로